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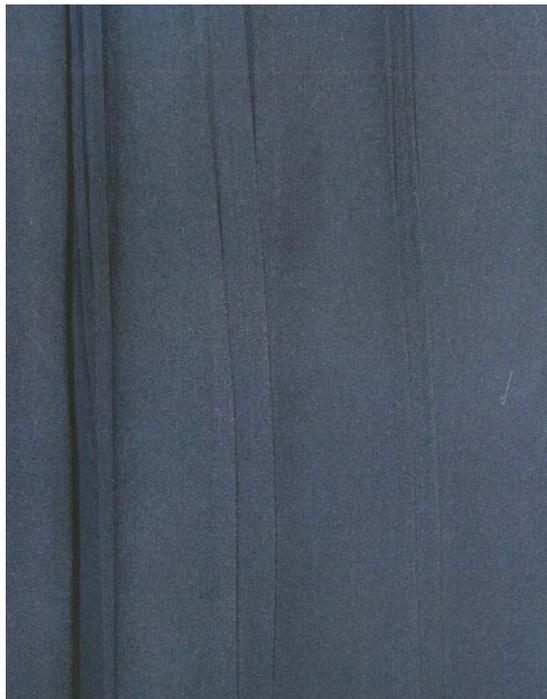
170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37) 폴리에스터 플리트 세팅 불량

□ 폴리에스터 플리트 세팅 불량

해설)

- 폴리에스터 100% 소재의 플리트(pleat, 주름)치마의 주름의 일부가 소실되었음. 폴리에스터 제품은 열가소성이라고 하는 성질에 의해서 품질이 높은 주름가공이 가능한 소재임.



- 양모 등의 소재는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시스틴(cystin) 결합으로, 형태안정 셔츠에 사용되는 면 소재 등은 가교결합에 의해서 주름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, 폴리에스터의 경우는 열가소성에 의한 주름유지로 그 성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. 원리적으로는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제품의 성형과 유사한 가공이라고 생각하면 됨.

- 한편, 본 제품의 부기에는 「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.」라고는 되어 있지만, 적절한 열고정처리가 행해지면, 일반적인 드라이클리닝·텀블 건조에도 견딜 수 있는 내클리닝성이 양호하고, 반영구적인 가공이 됨.
- 또한, 취급표시에는 「비나 물에 젖으면 주름 소실의 원인이 된다.」라고 되어 있지만, 폴리에스터 섬유는 흡수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물에 의한 영향은 생각할 수 없음. 이 경우의 클리닝공정에서는 입체 건조라고 하는 열 영향력이 낮은 건조 작업을 하고 있어, 플리트 가공 공정상의 열고정 온도의 설정에 문제가 있던 제품이라 할 수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